

석굴암의 운명 가를... 보존과 복원, 모형제작

다시 불거진 석굴암 복원 논란

2000년대 초 문화재청과 불국사가 제2석굴암 건립을 추진하며 사회적 논란이 된 제2석굴암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통일신라시대 경주 토함산에 세워진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미적 감각과 발달된 건축기법을 표현한 불교유적으로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석굴암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보수공사 때 시공한 콘크리트 외벽 등으로 습도문제가 발생해 유리벽으로 막아 보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때문에 참배객이 석굴암을 방문해도 제대로 참배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화강암 마모가 더 진행되면 유리벽 안에서 소수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불조차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고고학 1세대로 꼽히는 창산(昌山) 김정기(81) 박사는 최근 "석굴암 전실 입구의 신장상 2구가 1961년 복원되며 일렬로 나란히 펼쳐졌다"며 복원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재보원이 시급함을 주장 했다. 학계 소장학자들도 원로들에 의해 진행

된 석굴암 복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원불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석굴암의 필요성은 원형 훼손의 위험에 처한 석굴암 보존과 국민 관람권, 불자들의 참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형전시관 건립은 석굴암 본산인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에 의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1997년 10월 불국사는 "석굴암 참배객과 관람객의 증가로 문화재 가치가 날로 훼손되고 있다"며 제2석굴암 건립계획을 공개했다. 그 후 문화재청(당시 유홍준 청장)이 2002년 제2석굴암 건립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1년 간의 논란 끝에 유보됐다.

다시 10년 만에 제2석굴암 건립 논란이 불붙은 것은 5월 경주를 방문한 최광식 문화재청장에게 불국사와 경주시가 건립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부터다.

논란이 일자 불국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국회보는 7월 경 제2석굴암 논란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박연규 불국회보 편집장은 "사측 입장이 정해져 있는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주시는 석굴 내부 훼손 방지 및 외부관

람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2석굴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으로 인해 경주시는 제2석굴암 대신 석굴암사료관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상태다.

이우찬 경주시문화재청과 문화재 보수담당은 "모형을 건립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전시하면 석굴암 가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상 2구 일렬로 펼쳐져 있다"

김정기 박사 주장에 논란 재점화

습도 조절 안돼 화강암 마모 가속

복원불사 외에 모형 건립 의견도

현재 경주시는 문화재청에 사료관 건립 기조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예산 5억 6000만원을 요청한 상태로 문화재청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국립경주박물관장)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석굴암의 아름다움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치에 대한 견해와 함께 제2석굴암인지 모형

전시관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 등 석굴암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2석굴암 건립 52억원 소요

문화재청은 2002년 2월 4일 제2석굴암 건립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52억 여원의 예산으로 현재 석굴암에서 동남쪽 100m 떨어진 천현동 계곡에 지상1층, 지하 1층의 석굴암 역사박물관을 2002년 5월 착공해 2005년 개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지 하는 등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일었다.

1년 여의 논란 끝에 문화재위원회는 2003년 4월 합동회의를 열고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계획안과 위치가 부적절하다"며 "향후 건립규모 모형 재질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재고하도록 했다"며 일관적 됐다.

제2석굴암 건립계획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벌써부터 일부 불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을 펼칠 것인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 유보결정이 경관 파괴를 초래하는 위치가 결정적 원인이었던 만큼 건립유지가 변경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1913년 석굴암 해체 수리 당시 촬영된 사진.

(사진제공=성균관대 박물관)

특별기고-"제2석굴암 조성 시급하다"

제2석굴암도 완성도 높이면 제2의 문화재

요즘 문화계나 불교계에서는 제2석굴암 조성문제도 꽤나 시끄러운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실은 석굴암 입구 주차장 부근에 석굴암 모형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란이라 한다. 모형전시관은 일종의 박물관으로서 전시관은 전시실 안에 축소된 석굴을 만들어 관람하게 하고, 석굴에 관한 여러 가지 유물이나 모형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석굴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전시관은 석굴암쪽에서도 아직은 없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곳이라 할 수 있다. 석굴암의 석굴을 모작한 석굴 형태는 서울에도 있고 경주 과학관에도 있어서, 예불과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석굴 가까이에 모형전시관이 있어서 석굴암 안을 보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아쉬운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시관 형태보다 훨씬 시급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제2석굴암의 복원이다. 사실 토함산 제2석굴의 복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승인 아래 1997년에 설계가 끝나 집행만 남은 상태였으나 경주 시장의 예산 신성의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제2석굴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1995년경에 두어 차례나 제기해 당시 불국사 주지스님의 적극적인 호응아래 문화재위원이던 필자(종간사)와 김정기 김동현 정재훈 등 4명이 집행소위원회가 되어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때 제기한 제2석굴 복원의 필요성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더 절실해진 셈이다. 우선 다섯 가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석굴암을 관람하는 국내외 관람객의 불만을 해소시킬 필요성이다. 근래 석굴암 석굴을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

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계 전문가나 불교신도 가운데 예불에 참여하는 사람은 석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석굴암에 소속된 승려나 석굴 문화재 담당 공무원 또는 고위층 일부 이외에는 전혀 들어 갈 수 없다고 한다. 전국민으로 따지면 정말 극소수이며, 외국관광객까지 합산하면 입장객은 제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리고고 비싼 입장료를 내고 유리창을 통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본존불을 관람객들에게 떠밀려 가면서 간신히 지나치는 정도이니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를 기세가 아니겠는가.

사실 1995년에 석굴암을 떠밀리면서 다녀온 집사람의 지독한 원성을 듣고 문득 짚이는 바 있어 나도 관람객과 함께 두어 차례 관람했는데, 나 또한 떠밀려 가면서 국내외의 관람객들의 원성을 많이 들은 바 있다. 이후 내 자신 깊이 반성하면서 언론에 제2석굴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불

국사 주지스님에게도 제안했으며, 문화재 관리국과 관계 전문가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을 설득한 바 있다. 제2석굴의 복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석굴암을 보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석굴암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특권층이거나 돌 총 하나일 것이다.

둘째, 불교 신도들의 원성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석굴암의 본존 부처님이나 주위 협시들은 종교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세계 최고로 위대한 불상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이 위대한 부처님에게 전혀 예불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겉히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 원성을 해소하지 않고는 진정한 불교 지도자나 문화재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셋째, 8세기 중엽에 조성한 세계 최고의 불상조각을 오늘날 똑같이 복원하고 현재 그대로 완성도 높게 재현함으로써 최고의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강석에 현재 석굴불상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고결한 예술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당시 석굴암 불상을 조성한 작가와 후원자의 의도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계적 걸작의 기법과 예술적 감흥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토함산 석굴의 평면과 입면의 치밀한 과학적 구조와 건축적 조화의 신비로운 묘미를 오늘날의 기량으로 다시 한번 복원함으로써 해서 석굴의 조성의도와 건축적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신비에 싸인 석굴암의 건축적 구조를 학문적으로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토함산 석굴의 영원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올해가 석굴암이 조성된 지 1260년이 되는 해인데 그 동안의 풍화작용으로 심각하게 마멸된 곳도 있어서 언제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화강암 판석이 어느때에 무너져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대로나 그대로 복원함으로써 적어도 1300년 이상 또는 제3, 제4의 석굴이 계승 복원돼 우리의 최고 성보가 영원히 이어져 우리의 먼 후손들까지 볼 수 있도록 시급히 보존 조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짜퉁이니 성서러움이 없애고니 말이 무성하지만 불국사도 복원됐고 경복궁도 복원됐으며, 남대문도 복원 중에 있고 또한 오늘날 옛 모습을 재현한 무수한 불상·불화등을 조성 봉안해 열심히 예불하고

있지 않은가. 이를 누가 짝둥이냐 예불할 가치가 없애고니 폄하할 수 있는가. 완성도 높게만 복원하면 100년 후에는 이 또한 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람불허의 라스코 벽화동굴도 바로 옆에 원 동굴과 똑같은 제2라스코 동굴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원래의 벽화동굴처럼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 예는 제2석굴암 복원에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2석굴암은 환경파괴와 관계없는 석굴암 마당 아래의 화장실 옆 계곡과 마당에 걸쳐 복원한다면 석굴암과 거의 동일한 환경인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 및 종단 관계자는 물론 문화재관계자들도 합심해서 최고의 기량으로 제2석굴암 복원에 과감히 매진해야 할 때라 하겠으며, 한 통사 복원과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현재 불교종단의 현안의 과제라 확신한다.



문명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편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탐과 함께 배출되기때문에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트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질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대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면이 치료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은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옻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